

# 생명·평화의 염원 지리산 보다 높이...



◇15일 지리산 노고단에서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이 환경활동가들에게 생명·평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 2003 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숍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간 남원 실상사에서 2003 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숍이 열렸다. 50여단체 300여명의 환경활동가가 참석한 워크숍에서는 노고단에서 생명·평화의 기도, 집중·토론마당, 체험마당, 문화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 노고단에서 올리는 생명·평화의 기도

- 한반도 평화, 환경 살리는 길



“우리 모두 하나의 그물 안의 그물코처럼 더불어 함께 살아 가야 할 생명평화의 존재임을 깨달아 지리산에 잡든 영혼, 함께 사는 주인, 깃들여 있는 듯 생명의 뜻을 받들어 한반도와 지구촌의 생명·평화를 위해 오늘 두 손을 모으고 기도 드립니다.”

15일 지리산 노고단. 남원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 광주 선덕사 주지 행법스님을 비롯한 150여명이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한반도 단전에 속하는, 이념의 대립이 극심했던, 남북갈등의 경계선인, 생명살림의 터전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지리산에서 뜻생명과 상생·한반도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양재성 지리산생명연대 운영위원장(45)의 지리산 소개에 이어 신웅석 지리산국립공원 남부관리소장(46)이 환경 파괴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지리산은 빨치산 토벌 작전으로 많은 산림이 훼손됐습니다. 노고단의 경우 8년 동안 휴식년제를 했더니 자연 스스로 생명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15년 정도 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이 기도를 이어받았다.

“환경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건 바로 전쟁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전쟁위험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 집중·토론마당

- 전국 50여 단체 토론 열기로 가득



14일부터 16일까지 남원 실상사에서 2003 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숍이 열렸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지리산생명연대, 환경정의시민연대 주관으로 열린 워크숍에는 50여개 단체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리산에서 꿈꾸는 생명·평화의 세상’을 주제로 열린 워크숍 첫날은 도법스님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우리시대 환경 현황과 새로운 방법론 모색’ 주제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이틀째인 15일 새벽 지리산 노고단에서 생명과 평화의 기도를 한 환경활동가들은 오전 ‘생명위기시대의 진단과 반성’을 주제로 집중마당을 펼쳤다. ▲소모적 갈등에서 소통과 공감문화 만들기 ▲자치분권과 지역개발 ▲땅, 사랑, 에너지-대안경제 ▲강 살리기-새로운 전환과 모색 등 4분야로 나뉘어 진행된 집중마당에서는 이정호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사무처장, 변홍철 녹색평론 사무국장 등이 열린 토론을 벌였다.

활동가들은 오후에도 ▲세만금 그 성과와 전망 ▲도로 건설과 환경파괴, 그리고 생태적 삶/사진전 ▲시민환경운동은 농업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 것인가 ▲지역, 지구화시대의 녹색경제 운동의 과제와 방향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 전망과 올바른 방향 모색 ▲환경운동의 여성리더십-평가와 과제 등에 대해 토론마당을 열었다.

## 체험마당

- 수행프로그램 통한 자기 성찰의 기회



“‘위’는 특별한 몇 가지 대상을 의미합니다. ‘빠사나’는 올바른 관찰을 지칭하구요. 따라서 ‘위빠사나’는 특별한 몇 가지 대상을 올바르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15일 오후 극락전 옆 대나무 숲에선 성륜스님(실상사 화엄학림 강사의 지도로 체험마당인 ‘숲 속의 위빠사나’가 열렸다. 25명의 환경활동가들은 대부분 위빠사나 수행이 처음인 듯, 호기심어린 눈으로 스님의 강의를 경청했다.

“진실·현실은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지금 여기에 깨어 있을 때’ 가장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륜스님의 강의가 끝나자 활동가들은 편안한 자세로 자리를 틀었다. 죽비 소리가 세 번 울리자 활동가들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 허리를 곧추세우고 들숨과 날숨을 세기 시작했다. 20여분이 지나자 다시 죽비소리가 들렸다.

단전호흡을 수련한 적이 있다는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41)은 환경활동가들에게 수행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자신을 버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다는 활동가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늘 상상과 조화를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하지만 때때로 개인적인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숲 속의 위빠사나 외에도 천연염색, 지리산 풀과 열매로 효소담그기, 건강 속담, 부황(대체의학) 배우기, 춤 명상, 빨치산과의 대화 등의 체험마당이 열렸다.

## 문화마당

- 사찰문 열고 시대와 호흡



저녁 식사를 마친 활동가들이 다시 모였다. 문화마당인 ‘지리산자락 마을잔치’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행사는 ‘대보름 달빛아래 올리는 하늘제사’로 시작했다. 제사는 장희의 녹색대학 총장과 이정자 녹색미래 공동대표를 제주(祭主)로 분향과 취지문, 기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아픔을 딛고 상처를 딛고 선 의연한 산 지리산의 이름으로 은누리의 한생명, 은생명에게 생명평화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로 아름답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제사에 이어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나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 놓았다.

“천민자본주의·개발독재 시대에 행했던 도깨비가 다시 날뛰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인소득 2만불 올리기 캠페인이란 것 말입니다.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국가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지금, 대안없는 2만불 시대는 민족의 먹구름일 뿐입니다.”

나팔꽃 공연에 이어 백창우, 김원중, 김용택 등이 읊조리는 시와 노래는 지리산 자락을 발 딛도록 휘감아 돌았다.

2003 환경활동가 워크숍이 사찰에서 열린 것은 어떤 의미일까?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의 대답은 명쾌하다.

“불교사상과 정신을 시대에 실현하는 곳이 바로 사찰입니다. 또 그것이 사찰을 지은 본래 취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펴기 위해서 사찰이 문을 열고 시대와 호흡해야 합니다.”

남원=남동우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나...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서에서도 세상이 변하는대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 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이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국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몰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봉나루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